

KIA “내일 향해 댄다”



휴식을 끝낸 KIA 타이거즈 1군 선수단이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실내 연습장에서 체력 훈련을 하며 2019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주축 선수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마치고 챔스필드서 훈련 재개 “기본 체력 바탕돼야 내년 기약”...요가 등으로 몸풀며 전의 다져

숨을 고른 ‘호랑이들’의 새로운 질주가 시작됐다. 시즌 종료 후 휴식을 취해왔던 KIA 타이거즈의 주축 선수들이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최근 일본 오사카로 회복 훈련을 다녀온 이범호, 안치홍, 김선빈, 임기준, 임기영, 나지완 등과 함께 양현종, 김윤동, 한승혁, 윤석민, 김세현, 김민식, 서동욱 등이 이날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의 시작은 요가였다. 선수들은 외부 강사의 지시에 따라 ‘낮선 운동’으로 몸을 풀었다. 중간중간 비명이 나오기도 했

지만 선수들은 이내 동작을 따라 하면서 세밀하게 근육 운동을 했다. 요가로 워밍업을 한 선수들은 웨이트장과 실내 연습장에서 체력 훈련을 하면서 2019시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팬딩 챔피언”으로 2018시즌 출발선에 섰던 KIA는 5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대를 모았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실수 연발 속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일찍 포스트시즌의 관망자가 됐다. 다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은 명예 회복과 상승

세 잇기라는 다른 목표를 쫓게 된다. 김민식, 윤석민 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의 시즌을 그리는 선수들이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마지막 순간 ‘우승 배터리’로 포용을 했던 ‘에이스’ 양현종과 포수 김민식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각각 불운한 패전 투수와 실책 포수로 고개를 숙였다. 김세현과 윤석민도 뒷문 단속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발목 수술을 받았던 김선빈과 이범호도 크고 작은 부상에 고전했다. 서동욱은 최근 ‘쌍둥이 아빠’가 되면서 활약 웃었지만 그라운드에서는 웃지 못했다. 콜업을 앞두고 발가락 부상도 당하는 등 32경기 출전에 그쳤다. 반면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으로 시즌을 완주한

안치홍은 더 큰 그림을 그린다. 특히 내년 시즌이 끝나면 김선빈과 함께 FA 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안치홍에게 2019시즌은 팀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즌이다. 올 시즌 필승 좌완 불펜으로 자리를 굳힌 임기준과 선발로 7승을 수확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한승혁도 마무리 캠프가 아닌 1군조에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김윤동도 지난해의 모습을 이어 올 시즌 팀의 불펜 중심으로 역할을 했다. 엇갈린 시즌을 보낸 이들은 요가와 체력 훈련 등을 하면서 수, 일요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훈련에 나선 김윤동은 “(요가 훈련을 했는데) 따라 하기 힘든 동작도 많았던 것 같다. 우리가 쓰는 근육이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매일 하던 것과 다른 것이니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겨울에 필라테스를 했는데 발목 재할 쪽으로 맞춰서 했었다. 하면서는 몰랐는데 올 시즌 들어오면서 발목 아팠던 게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볼넷도 많았고 변화구도 확실한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다. 올 시즌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며 지난 시즌을 돌아본 김윤동은 “쉬면서 집에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었다.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팀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보강 회복 위주로 내년 시즌 건강하게 야구할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S 우천 순연 어느 팀에 유리할까

오늘 4차전 두산 선발 이영하→린드블럼 교체 ... SK, 김광현 그대로

8일 오후 6시 30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마스터즈 KBO 한국시리즈 4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역대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18번째 우천순연 경기다. 이 중 8번이 한국시리즈에서 나왔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구장에서 투수들의 캐치볼 훈련을 지켜본 손혁 SK 투수코치는 “4차전 선발 김광현이 비로 하루 쉬어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 투수들도 쉬게 돼 괜찮다”고 비를 반겼다. 한국시리즈에서 내린 비는 전체 시리즈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큰 변수가 안되기도 했다. 1984년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7차전, 2001년 두산과 삼성의 한국시리즈 2차전은 비가 시리즈 결과를 뒤집은 대표 사례다.

‘무쇠팔’ 고(故) 최동원의 홀로 4승으로 유명한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롯데는 비 덕분에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동원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완봉승, 3차전에서 완투승, 5차전에서 완투패를 하고 6차전에서 5회부터 또 구원 등판해 승리를 챙겼다. 아무리 초인적인 정신력을 지녔더라도 7차전에 도저히 등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같은 단비가 7차전에 내렸다. 하루를 쉬 최동원은 7차전에 선발 등판해 삼성을 상대로 9이닝 동안 4점으로 버텼고, 고(故) 유두열의 역전 3점 포가 터져 팀이 6-4로 이긴 덕분에 최동원은 역사적인 시리즈의 주인공이 됐다. 2001년 한국시리즈에서 비는 두산 편이었다. 정규리그 3위로 준PO, 플레이오프(PO)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오른 두산은 정규리그 1위 삼성과 힘겨운 한국시리즈를 펼칠 것으로 보였다.



두산 린드블럼

SK 김광현

예상대로 1차전을 잡은 삼성은 여세를 몰아 2차전 승리를 노렸지만, 앞꿈에 비에 꿈을 접었다. 준PO 2경기과 PO 4경기, 한국시리즈 1경기 등 7경기를 연속으로 치른 두산은 비 덕분에 체력을 비축했고, 하루 후 재개된 한국시리즈에서 2~4차전 세 경기를 내리 이겨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취소된 4차전 경기는 9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K는 토종 에이스 김광현을 그대로 4차전 선발로 정했다. 두산은 토종 영건 이영하 대신 외국인 에이스 린드블럼으로 선발 투수를 바꿨다. /연합뉴스

양의지·최정 “휴~”

KBO, FA 제도 개편안 무산...상한제 없이 연봉 협상

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제시했던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KBO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는 선수협과 추가로 FA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BO는 9월 19일 선수협에 FA 총액 상한제,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수년 전부터 선수협이 KBO에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다. KBO는 선수협에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FA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FA 상한액 제도를 놓고 올해 FA 자격을 얻는 특급 선수에 관심이 쏠렸다. KBO가 정한 상한액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양의지(두산), 최정(SK) 등이다. FA 상한액 제도의 '1호 적용 사례'가 될 뻔했던 일부 선수는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예전처럼 금액의 제한 없이 협상을 벌일 수 있다. KBO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면 FA 자격 선수를 공식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개선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